

새한, 환경소재 기업 전환 선언

새한이 화학섬유기업에서 환경소재 기업으로 전환한다.

새한은 기존 주력사업인 직물, 화섬 사업에서 환경소재사업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새로 짰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한의 환경소재사업 부문은 현재의 1000억원 규모에서 필터부문 2000억원, 수처리부문 1000억원, 시트(Sheet)부문 1000억원으로 2006년까지 4000억원 규모까지 성장시킬 계획이다.

새한은 지난 94년 국내 최초의 독자 기술로 역삼투분리막 개발에 착수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성공한 바 있다. 이 같은 환경소재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역삼투분리막 공장 증설에 나서 오는 10월에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세계 3위의 역삼투분리막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한은 현재 전세계 22개국 이상의 국가에 역삼투분리막을 수출하고 있으며, 올 수출액은 1500만달러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의 2배인 3000만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광업 새한 사장은 "앞으로 전세계의 주요 수처리 전문업체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필터와 수처리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산업, 유해가스 제거 소각로 개발

플라즈마 용융법을 이용해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최신 기술의 용융소각로가 개발됐다.

플라즈마는 물질에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성일산업(대표 임수택)은 기초과학연구소 플라즈

마연구팀 출신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자회사인 애드플라텍을 설립, 지난 2년 동안 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플라즈마 열분해 용융로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품은 전기를 이용, 섭씨 영상 1만~2만도의 고열로 쓰레기를 고온 열분해 용융해 유해가스와 다이옥신 발생을 차단하고 소각잔재물(슬러지)도 거의 남지 않도록 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즈마 용융기술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개발해 출시단계에 있는 최신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기술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대부분의 쓰레기는 고온 열분해돼 슬래그로 배출되며 슬래그는 콘크리트와 혼합해 보도블록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문제작방식으로 납품하며 가격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 1회용기 개발

한 신생 중소기업이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 1회용기 완제품을 생산, 환경마크를 획득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 생산업체인 (주)엔존(대표 임현영.35)은 용도에 따라 1~6개월 내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1회용기의 완제품 개발에 성공, 지난 9월 18일 국내 최초로 환경마크협회로부터 생분해성 우수제품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엔존은 자사가 보유한 제품화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완제품은 1회용기와 포장재, 건축자재를 비롯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거의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존이 제품화에 성공해 환경마크를 획득한 1회용

기는 음식을 담는 용기와 낚시미끼통, 쇼핑백, 쓰레기 봉투, 비닐식탁보, 수저, 포크 등으로 일반 비닐이 땅 속에서 썩는데 30년 정도 걸리는데 비해 이들 1회용 기는 땅, 물속에서 가수분해효소와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1~6개월 정도만에 완전분해 된다.

엔존은 농협중앙회와 전국 1천300여 하나로마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1회용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주문이 쇄도, 올해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두산, 환경기술 독립 사업화

"환경이 돈이다." 10년 넘게 환경경영을 추구해 오면서 두산은 환경분야가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두산그룹 자체 환경평가를 위해 설립한 두산 환경센터를 두산에코비즈넷으로 분사했다.

두산에코비즈넷은 두산그룹을 환경친화 선도기업으로 발돋움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경영, 환경기술, 생물공학기술 등의 선진기술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두산에코비즈넷이 제공하는 환경컨설팅 서비스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전략을 수립해 주는 환경안전지도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해 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주는 청정생산지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는 환경위기관리 등이 있다.

이 밖에 품질환경경영체제(ISO-9000·14000) 구축과 운영,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자문과 기술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여건으로 인해 환경관리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박광수 두산에코비즈넷 상무는 "국내 기업들은 아직 일부 대기업만 환경에 관심을 둘 뿐 중소기업들의

환경인식은 낙후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규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유럽서 환경경영추진팀 발족

삼성전자는 유럽의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주 환경경영추진팀"을 신설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환경안전경영위원회 이상배 부사장을 비롯해 유럽 내 12개 법인의 법인장, 환경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발대식에서는 각 법인의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과 관련한 현지 대응체제 구축 등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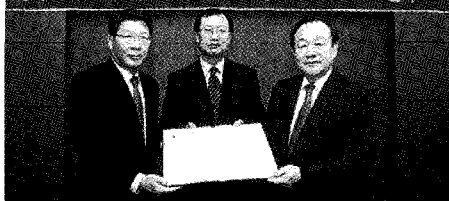
구주환경경영추진팀은 앞으로 유럽 각국 및 EU의 환경관련 세부 법규화 진행 정보를 입수하고 선진업체들과의 전략 컨소시엄 구축을 직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지역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데다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

SK(주), 10개 협력사와 청정생산기술 이전 협약

청정생산 이전 확산 사업협약 체결

일시: 2003년 9월 29일(월) 장소: SK주식회사 본사



SK(주)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

서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한농화성 등 10개 협력업체와 통합환경경영체계(ISO14000) 구축 및 청정생산기술 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SK(주) 황두열 부회장(오른쪽),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보(가운데), 한농화성 김응상 사장(왼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친환경 해충퇴치기 상용화 성공

한국산업기술대(총장 최홍건)는 이 대학 산업디자인공학과 주대원 교수팀이 벤처기업인 한국아이템개발 연구팀과 산학협동으로 친환경적 해충퇴치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과제를 통해 개발한 이 제품은 특수 자외선 램프와 광촉매작용에 의한 미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해충을 유인하는 장비로 독성이 있는 살충성분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 제품이다.

해충을 잡는 장치는 유체의 선회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한 입자분리방식인 사이클론 원리가 적용됐다.

이 제품은 모기유충이 대량 서식하는 주택가 하천변의 가로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안산시에 납품, 화정천에 50대를 설치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주 교수는 "기존의 전기충격 해충퇴치기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포집된 해충의 사체가 자동분리돼 따로 보관되므로 청소관리가 쉽고 방우(防雨)기능을 갖추고 있어 우기에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아이템개발측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유충의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전염병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해충퇴치기 시장이 커지면서 내수 뿐 아니라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수성코팅제 개발

SK케미칼은 환경친화적인 수성코팅제를 개발했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성코팅제는 포장용기 표면에 얇은 필름을 형성시키는 재료로 다양한 인쇄물의 최종 코팅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회사측은 "이번에 개발된 수성코팅제는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인터내셔널, 베트남서 환경설비사업 수주

대우인터내셔널(대표 이태용)이 1천500만달러 규모의 베트남 환경설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 23일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 산하 우렌코(Urencor)사가 발주한 1천500만달러 규모의 고체폐기물퇴비화설비터키 공사를 수주하고, 이날 오후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퐁시청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측이 수주한 이 설비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건설되는 것으로, 오는 2005년말 공사가 끝나면 하이퐁시는 하루에 200t 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인터내셔널 하노이지사의 고재욱 이사는 "이 설비공사는 지난 1996년부터 추진돼온 것으로 7년만에 계약체결로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서 대우가 환경설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작년에도 대만에 2건의 산업폐기물 소각로를 수출, 한국기업의 환경설비 수출에 건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